

소재 메이커의 중점 소재, 제품 및 전략

1. 도요보STC

도요보STC의 내의 사업부는 10월부터 내의 부분과 원사 판매 부분을 통합하고, 내의 그룹과 나일론 그룹의 2개 그룹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그룹에서 실과 원단의 2가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내의 그룹은 금년 하반기에 원단 판매 부분에서 고객에 대처하면서 양적 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 판매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원단은 극세 아크릴 및 나일론을 사용하면서 가볍고 얇은 기능을 축으로 춘하에는 상쾌함, 추동에는 따뜻함 등을 부가한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금후는 실의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사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일론 그룹에서는 경편물팀을 강화하고, 대표 소재뿐만 아니라 자카드 등으로도 상품 폭을 넓혔다. 또한 사이프스를 활용한 장단 복합 소재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다. 고기능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종합연구소에 있는 평가 설비를 활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금후는 수출의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기존의 홍콩뿐만 아니라 기타 아시아를 주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소비는 극세 나일론인 아이시스를 축으로, 고강력 나일론인 실파인 및 이형 단면사 등 차별화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외에 이제까지 적었던 콤프레션 내의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보정 내의에 사용되었던 고치 형태 단면 나일론인 코쿤 및 스판덱스인 에스파 등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

2. 신나이가이멘

신나이가이멘은 내의 소재로서 주력인 정제 셀룰로스 텐셀 등과 더불어 해조 분말 혼입 리오셀인 시셀 시리즈의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그 해법은 천연 유래 섬유에 의한 “환경” 및 해조 혼입에 의한 “건강”이다.

시셀은 독일 스마트파이버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소재로 텐셀 및 면과 혼방함으로써 해조 미네랄의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신나이가이멘이 이 섬유의 독점 수입권을 갖는다. 면 및 텐셀에 레귤러 시셀을 혼방한 시셀퓨어, 레귤러 시셀과 은 이온 배합 시셀을 혼방한 시셀액티브, 은 이온 배합 시셀 혼방의 리오실버의 3가지 타입을 구비한다. 리오실버는 많은 수요가 있는 항균방취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미 구미에서는 내의 및 양말, 침장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판매를 담당하는 신나이가이멘으로서는 계속 프로모션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림 1> 시셀액티브

한편 2010년 추동 소재로서는 많은 인기가 있는 텐셀, 케시미어 혼용 환편물 및 텐셀, 아크릴 혼용의 보온 소재인 셀웜을 주축으로 한다. 또한 텐셀, 양모 혼용 제품도 개발 중이다. 원료 및 방적 기술의 응용으로 피부에 접촉하더라도 쿡쿡 찌르는 느낌이 없는 촉감을 추구하여 양모 내의라는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다이이치보

다이이치보는 2010년 추동 내의 소재로서 개발한 발열 보온 소재인 메쿠이토, 리얼 핫을 축으로 양판점 등으로의 프라이빗 브랜드(PB)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매량, 매장고와 함께 전년 동기를 상회하는 것을 노린다.

메쿠이토는 면, 편평 레이온, 큐프라 혼방의 특수사를 사용한 환편물이다. 셀룰로스의 습윤에 따른 발열 성능을 실 가운데의 공기층에서 보온하는 것으로 발열 보온 기능을 실현한 셀룰로스 섬유 100%의 기능 소재이다. 종래의 발열 보온 소재는 아크릴을 중심으로 한 합성 사용이 주류이므로 아무리해도 합성 메이커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내의 시장에서 합성 사용 보온 소재는 포화 상태에 있으므로 면을 중심으로 하여 셀룰로스 섬유 100%라고 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힘을 쏟는 것은 양판점 등의 PB 제품의 OEM 대응이다, 당사는 중국에 편직, 봉제의 협력 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으로부터 원사를 도입하여 중국에서 편직, 봉제로 제품 납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살려서 양판점 등의 PB의 OEM 수주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성 사용의 수요에 대응해서는 리얼 핫을 제안한다. 코어에 흡수성 아크릴을, 시스에 마이크로 아크릴과 편평 레이온을 사용한 환편물이다. 셀룰로스의 발열을 아크릴로 보온하면서 흡수 아크릴의 효과로 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한다. 이 제품 역시 제품 납입에 의한 OEM 수주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림 2> 메쿠이토

4. 후지보홀딩스

후지보홀딩스는 섬유 차별화 상품 개발팀을 중심으로 면 100%를 사용한 고급 신사 내의 로모스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모스는 방적부터 봉제까지 그룹에서 일관 관리된 일본산 내의이다. 이제까지 연속 실크 면사인 렌실을 사용한 내의 및 면 100%의 냉감 내의인 로모스 아이스드코튼을 개발, 판매하고, 2009년 추동은 보온성을 높인 로모스 단코튼을 시험적으로 판매했다. 인터넷 및 직영점, 일부 백화점을 판로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2010년도에 2만매의 판매를 계획한다.

단코튼은 보온성을 높임으로써 원단을 두껍게 하지 않고, 공기층을 두껍게 한다는 발상으로 실과 가공, 편성 기술에 의한다. 면 100%로 얇고 가볍고

따뜻하며, 반복 세탁에도 기능이 지속된다.

면 100%이면서 합성에 필적하는 차별화 상품은 경향이 적고, 면 내의를 선호하는 세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림 3> 로모스 단코튼